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역량과 다중지능의 관계

오숙희<sup>1\*</sup>, 선정주<sup>2</sup>, 장성화<sup>3</sup>

<sup>1</sup>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청암대학교 간호학과, <sup>3</sup>공군사관학교 심리학과

##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Global Competences and Their Multiple Intelligenc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k-Hee Oh<sup>1\*</sup>, Jeong-Ju Sun<sup>2</sup>, Sung-Hwa Jang<sup>3</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Jeonbuk Science College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Chongam College

<sup>3</sup>Department of Humanities,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역량과 다중지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전남과 전북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 4개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총 768명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고, 총 768부중 733부가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글로벌 인재 역량과 학년에 따른 글로벌 인재역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글로벌 인재역량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과의 관계는 신체운동지능과 자기성찰지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글로벌 인재역량이 다중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간호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 및 전략을 제공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키워드** : 산업혁명, 다중지능, 글로벌, 인재, 역량,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analysis of global competencies and multiple intelligences among nursing student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to nursing students. and 733 samples were finally applied. Result, Global Competencies in male students significantly higher than women students. There were sta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Global Leader Competency and Multiple Intelligence.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multiple intelligence had relation with Global Leader Competency Therefore, strategy needs to reflect nursing curriculum and education program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 Industrial Revolution, Multiple Intelligences, Global, Competent, Capability, Nursing Student

### 1. 서론

최근 의료가 글로벌 기준(Global Standard)으로 표준화 되어 가고, 2009년 해외환자 유치, 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해외환자는 2009년 6만 명에서

#### 1.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현재 26.7만 명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2].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간호사는 다양한 국적, 인종, 연령, 경제 및 건강상태 등을 가진 외국인 환자들에게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는 국제간호 역량이 요구된다[3]. 이러한 요구는 임상현장에서 질환의 다양성 및 심각성과 대상자의 변화에 따라 간호요구도가 높아지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역할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간호 교육은 국가고시라는 큰 과제를 두고 합격에 초점한 지식축약적인 학습으로, 학생들은 졸업 후 업무와의 혼란과 괴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이론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다중이론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 인재의 특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IQ, EQ가 주를 이뤘다면, 학생교육 중 다중지능이론에 대해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4]. 다중지능이란 여덟가지 독립된 지능 즉 언어, 논리, 수학, 공간적, 신체운동, 음악적, 대인관계, 자기이해, 자연탐구 등의 지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5]. 이러한 다중지능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학습과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되었으며, 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다중지능 이론을 반영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창의성,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7]. 더불어 앞서 보고된 연구결과를 통해 다중지능을 학생 교육과정에 고려한다면 간호학과 학생의 졸업 후 간호 실무에 있어서 창의적인 문제에 영향을 줌으로써 새로운 간호인재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 국제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자를 간호할 글로벌 역량이 높은 보건의료 인력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국제진료코디네이터라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실태이다[8]. 글로벌 영역의 한 영역인 문화적인 이해도에 있어서 간호사의 이해정도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9]. 간호학생의 경우 국제화프로그램 참여 후 대상자의 보건문제를 사정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적인 이해도가 높아졌다[10]. 앞선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상 현장 내에 문제해결과정 중 글로벌 영역이 연관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기술, 빅 데

이터,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이다[11].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학습에서도 교육 차원에서의 큰 변화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지식 습득의 주입식 학습보다는 복합적인 문제해결력과 융합적인 창의적 사고, 감성적 지능을 가진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12,13].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역량과 다중지능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다중지능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며, 글로벌 인재 역량과 다중지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국외 연구에서 간호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논문은 있었다[14]. 그러나 간호대 학생을 중심으로 한 논문은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 역량과 다중지능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교육에서 다중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글로벌 영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학생 개인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부합되는 교육과정과 학습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 역량과 다중지능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 1.3 용어정의

### 1.3.1 다중지능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은 Gardner가 1983년 제시한 이론으로 인간은 다양한 능력을 소유하는데, 인간의 지능은 음악, 신체운동, 논리수학, 공간, 언어, 대인관계, 개인이해, 자연지능 등 총 8가지 기능을 뜻한다[7].

### 1.3.2 글로벌 인재 역량

글로벌 인재 역량이란 글로벌 인재가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글로벌화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맞춰 어떠한 일이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다. 여기서 문제를 잘 해결해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자아 등과 같은 종합적인 것을 뜻한다[15].

1.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전남지역과 전북지역 4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역량과 다중지능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전남과 전북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지역별 각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7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들에게 미리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 후, 수업 종료 20분 전 연구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초기에 768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회수된 질문지 중 문항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지 35부를 제외한 나머지 733명을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3 연구도구

2.3.1 글로벌 인재 역량 척도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인재 역량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은림이 개발한 것을 백소영이 재구성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15,16]. 이 척도는 전체 39문항이며, 다문화의식, 지구공동체의식, 문제해결력, 창의력확산적사고, 감수성, 과제집착력, 변화추진, 조직소속감, 조직과 가치관, 비전공유 등의 9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소영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다문화의식 .88, 지구공동체의식

.83, 문제해결력 .84, 창의력확산적사고 .77, 감수성 .71, 과제집착력 .72, 변화추진 .83, 조직소속감 .64, 조직과 가치관, 비전공유 .87 그리고 전체 신뢰도는 .98로 나타났다[15]. 본 연구의 하위영역별(다문화의식, 지구공동체의식, 문제해결력, 창의력확산적사고, 감수성, 과제집착력, 변화추진, 조직소속감, 조직과 가치관, 비전공유) 신뢰도는 .63, .68, .81, .82, .69, .75, .86, .68, .84이며, 전체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2.3.2 다중지능 척도

본 연구에서는 다중지능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Shearer가 개발한 MIDAS (Multiple Intelligence Development Assessment Scale)검사 도구를 변안 및 타당화 연구를 한 김현진의 K-MIDAS 검사 도구를 황민자가 재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5,17,18]. 이 척도는 전체 119문항이며, 음악기능, 신체운동기능, 논리수학기능, 공간기능, 언어기능, 인간친화기능, 자기성찰 기능, 자연친화기능 등의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민자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음악기능 .89, 신체운동기능 .80, 논리수학기능 .86, 공간기능 .85, 언어기능 .91, 인간친화기능 .88, 자기성찰 기능 .87, 자연친화기능 .88 그리고 전체 신뢰도는 .96로 나타났다[18]. 본 연구의 하위영역별(음악기능, 신체운동기능, 논리수학기능, 공간기능, 언어기능, 인간친화기능, 자기성찰 기능, 자연친화기능) 신뢰도는 .88, .83, .88, .86, .93, .89, .81, .91이며, 전체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글로벌 인재 역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하위영역별로 F-검증과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Education grade				Total
		Grade 1 n(%)	Grade 2 n(%)	Grade 3 n(%)	Grade 4 n(%)	
Gender	Male	66(34.7%)	35(13.7%)	31(16.5%)	13(13%)	145(19.8%)
	Female	124(65.3%)	220(86.3%)	157(83.5%)	87(87%)	588(80.2%)
Total		190(25.9%)	255(34.8%)	188(25.6%)	100(13.6%)	733(100%)

다중지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하위영역별로 F-검증과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역량, 다중지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역량이 다중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성별과 학년별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 역량 차이 분석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글로벌 인재 역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3학년(M=159.33)이 2학년(M=157.26), 1학년(M=148.08)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성별을 보면 여학생(M=154.57)이 남학생(M=153.3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3과 같다. 그 결과 두 변인(성별과 학년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1.1 성별에 따른 글로벌 인재 역량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전반적인 글로벌 인재 역량의 차이분석을 위해 각 하위구성요인간의 상관성이 있

Table 2.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ccording to Gender and Education grade Difference

Education grade	Gender	n	Mean	SD
Grade 1	Male	66	139.21	26.39
	Female	124	132.45	19.07
	Total	190	134.80	22.06
Grade 2	Male	35	133.02	18.35
	Female	220	132.25	16.12
	Total	255	132.36	16.41
Grade 3	Male	31	135.09	27.13
	Female	157	132.05	19.45
	Total	188	132.55	20.86
Grade 4	Male	13	139.07	11.49
	Female	87	134.45	18.17
	Total	100	134.06	17.47
Total	Male	145	136.82	23.78
	Female	588	132.56	17.97
	Total	733	133.41	19.31

Table 3. Global Compet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Education grade Difference

Variables	S	$\phi$	MS	F
Education grade	1043.047	3	347.682	.935
Gender	1258.746	1	1258.746	3.385
Gender X Education grade	671.131	3	223.710	.602
Error	269601.778	725	371.865	
Total	1.332E7	733		

기 때문에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했으며, 이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에 의하면, 문제해결력, 변화촉진, 조직소속감 그리고 전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글로벌 인재 역량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688, p<.05).

Table 4. Global Competenc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

Categories		n	Mean	SD	F
Multicultural consciousness	Male	145	11.51	2.12	.852
	Fe-male	588	11.31	2.25	
Earth community consciousness	Male	145	10.73	4.22	.513
	Fe-male	588	10.50	3.13	
Problem solving skills	Male	145	20.40	4.11	7.841**
	Fe-male	588	19.38	3.86	
Creativity	Male	145	12.44	3.12	2.975
	Fe-male	588	11.98	2.78	
Sensitivity	Male	145	11.25	5.10	.153
	Fe-male	588	11.14	2.12	
Task commitment	Male	145	10.35	2.28	1.284
	Fe-male	588	10.12	2.19	
Change promotion	Male	145	13.60	3.12	11.620**
	Fe-male	588	12.65	2.95	
Organizational belonging	Male	145	10.23	2.15	9.012**
	Fe-male	588	9.68	1.94	
Organizational value and vision in sharing	Male	145	36.29	6.27	.972
	Fe-male	588	35.76	5.66	
Total	Male	145	136.82	23.78	5.688*
	Fe-male	588	132.56	17.97	

\*\*<.05, \*\*p<.01

### 3.1.2 학년에 따른 글로벌 인재 역량의 차이

학년별 글로벌 인재 역량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글로벌 인재 역량의 하위변인인 다문화의식, 지구공동체의식, 문제해결력, 창의력, 감수성, 과제집착력, 변화추진, 조직소속감, 조직과 가치관 비전공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년별에서도 글로벌 인재 역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943, p>.05$ ).

### 3.2 성별과 학년별 간호대학생의 다중지능 차이 분석

학년과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6과 같다. 다중지능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1학년( $M=381.41$ )이 4학년( $M=379.64$ ), 2학년( $M=377.84$ ), 3학년( $M=375.60$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성별차이를 보면 남학생( $M=384.40$ )이 여학생( $M=376.9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7과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년과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1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 하위구성요인간의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했으며, 이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면, 신체운동지능과 자기성찰지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두 영역 모두 남자집단의 평균이 여자집단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음악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인간친화지능, 자연지능, 그리고 전에 영역에서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2.2 학년에 따른 글로벌 인재 역량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다중지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에 의하면, 학년에 따른 다중지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의 다중지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역량, 다중지능 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역량, 다중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글로벌 인재역량과 다중지능의 하위변인들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음악지능과 조직과 가치관 비전공유( $r=.38$ )이, 신체운동지능과 창의력( $r=.43$ )이, 논리수학지능과 문제해결력( $r=.46$ )이, 공간지능은 창의력과 변화추진( $r=.46$ )이, 언어지능과 창의력( $r=.57$ )이, 인간친화지능과 조직가치관비전공유( $r=.60$ )이, 자기성찰지능과 조직가치관비전공유( $r=.58$ )이, 그리고 자연지능은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r=.37$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지능의 하위변인인 인간친화지능과 조직과 가치관 비전공유가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나타났다.

Table 5. Global Competences According to Education grade Difference

Categories	n	Mean	SD	F	
Multicultural consciousness	Grade1	190	11.43	2.89	.145
	Grade2	255	11.33	1.86	
	Grade3	188	11.29	2.05	
	Grade4	100	11.40	1.93	
	Total	733	11.35	2.22	
Earth community consciousness	Grade1	190	10.55	3.89	1.377
	Grade2	255	10.41	2.16	
	Grade3	188	10.40	2.34	
	Grade4	100	11.17	5.68	
	Total	733	10.55	3.37	
Problem solving skills	Grade1	190	19.90	4.17	1.018
	Grade2	255	19.40	3.90	
	Grade3	188	19.34	3.96	
	Grade4	100	19.88	3.48	
	Total	733	19.58	3.93	
Creativity	Grade1	190	12.30	2.96	.633
	Grade2	255	11.94	2.61	
	Grade3	188	12.00	2.94	
	Grade4	100	12.11	3.08	
	Total	733	12.07	2.85	
Sensitivity	Grade1	190	11.13	4.53	.313
	Grade2	255	11.10	2.12	
	Grade3	188	11.15	2.28	
	Grade4	100	11.43	1.98	
	Total	733	11.16	2.95	
Task commitment	Grade1	190	10.45	2.25	1.541
	Grade2	255	10.05	2.01	

	Grade3	188	10.02	2.49	
	Grade4	100	10.21	2.06	
	Total	733	10.17	2.21	
Change promotion	Grade1	190	13.01	3.01	.517
	Grade2	255	12.70	2.89	
	Grade3	188	12.93	3.24	
	Grade4	100	12.69	2.85	
	Total	733	12.84	3.01	
Organizational belonging	Grade1	190	9.98	2.13	1.594
	Grade2	255	9.60	1.95	
	Grade3	188	9.76	1.96	
	Grade4	100	9.94	1.90	
	Total	733	9.78	2.00	
Organization, value and vision in sharing	Grade1	190	36.02	6.27	.293
	Grade2	255	35.80	5.12	
	Grade3	188	35.62	6.58	
	Grade4	100	36.23	4.81	
	Total	733	35.87	5.79	
Total	Grade1	190	134.80	22.06	.943
	Grade2	255	132.36	16.41	
	Grade3	188	132.55	20.86	
	Grade4	100	135.06	17.47	
	Total	733	133.41	19.31	

Table 6. Multiple Intellig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Education grade Difference

Education grade	Gender	n	Mean	SD
Grade 1	Male	66	392.63	67.98
	Female	124	375.43	58.39
	Total	190	381.41	62.25
Grade 2	Male	35	380.62	54.71
	Female	220	377.40	53.78
	Total	255	377.84	53.81
Grade 3	Male	31	371.48	73.78
	Female	157	376.42	64.36
	Total	188	375.60	65.82
Grade 4	Male	13	383.61	52.56
	Female	87	379.04	55.06
	Total	100	379.64	54.51
Total	Male	145	384.40	65.02
	Female	588	376.96	57.79
	Total	733	378.44	59.32

Table 7. Multiple Intellig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Education grade Difference

Variables	S	$\phi$	MS	F
Education grade	6790.770	3	.641	.589
Gender	2193.916	1	.622	.431
Gender X Education grade	8666.961	3	.819	.484
Error	2558599.813	725		
Total	1.076E8	733		

Table 8. Multiple Intelligenc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

Categories	n	Mean	SD	F	
Musical Intelligence	Male	145	46.72	10.63	.883
	Female	588	47.60	9.98	
Bodily Kinesthetic Intelligence	Male	145	40.87	9.65	5.980*
	Female	588	38.75	9.27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Male	145	50.54	12.35	3.247
	Female	588	48.60	11.43	
Spatial Intelligence	Male	145	47.00	9.72	1.265
	Female	588	45.97	9.81	
Linguistic Intelligence	Male	145	65.57	13.17	1.174
	Female	588	64.34	12.00	
Interpersonal Intelligence	Male	145	64.69	12.40	.243
	Female	588	64.22	9.60	
Intrapersonal Intelligence	Male	145	30.54	5.99	4.068*
	Female	588	29.54	5.19	
Naturalist Intelligence	Male	145	38.44	10.77	.309
	Female	588	37.90	10.27	
Total	Male	145	384.40	65.02	1.830
	Female	588	376.96	57.79	

\*<.05

### 3.4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역량이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다중지능의 하위변인에 대한 글로벌 인재역량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514-1.000, 분산팽창요인은 1.000-1.952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중지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단계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1단계에서 다중지능 전체에 대해 창의력 확산사고가 34.3%의 설명력을 가지며, 2단계에는 조직소속감이 추가되어 다중지능 전체에 10.5%가 증가하여 44.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3단계에서는 문제해결력이 추가되어 3.2%가 증가하여 48%의 설명력이, 4단계에서는 변화촉진이 추가되어 2.6%가 증가하여 50.6%의 설명력이, 5단계는 감수성이 추가되어 1.9%가 증가하여 52.5%의 설명력이, 6단계는 조직과 가치관비전공유가 추가되어 0.8%가 증가하여 53.3%의 설명력이, 마지막 7단계는 지구공동체의식이 추가되어 0.4%가 증가하여 53.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지능의 각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단계

Table 9. Multiple Intelligences According to Education grade Difference

Categories		n	Mean	SD	F
Musical Intelligence	Grade 1	190	47.21	10.16	.830
	Grade 2	255	47.97	9.72	
	Grade 3	188	46.59	11.27	
	Grade 4	100	48.04	8.60	
	Total	733	47.43	10.11	
Bodily Kinesthetic Intelligence	Grade 1	190	39.70	9.35	.294
	Grade 2	255	38.89	9.21	
	Grade 3	1888	39.14	9.84	
	Grade 4	100	38.93	9.08	
	Total	733	39.17	9.38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Grade 1	190	50.19	12.26	1.034
	Grade 2	255	48.26	11.46	
	Grade 3	18	48.75	12.05	
	Grade 4	100	48.98	9.88	
	Total	733	48.98	11.63	
Spatial Intelligence	Grade 1	190	46.55	10.01	.152
	Grade 2	255	46.09	9.50	
	Grade 3	188	46.12	10.42	
	Grade 4	100	45.79	9.02	
	Total	733	46.18	9.80	
Linguistic Intelligence	Grade 1	190	64.94	13.08	.610
	Grade 2	255	64.48	11.06	
	Grade 3	188	63.78	13.10	
	Grade 4	100	65.71	11.88	
	Total	733	64.59	12.24	
Interpersonal Intelligence	Grade 1	190	64.82	11.14	.557
	Grade 2	255	64.36	9.79	
	Grade 3	188	63.55	10.50	
	Grade 4	100	64.72	8.80	
	Total	733	64.32	10.21	
Intrapersonal Intelligence	Grade 1	190	30.10	6.34	.420
	Grade 2	255	29.54	4.69	
	Grade 3	188	29.64	5.42	
	Grade 4	100	29.72	4.86	
	Total	733	29.74	5.37	
Naturalist Intelligence	Grade 1	190	27.87	10.12	.063
	Grade 2	255	28.21	9.49	
	Grade 3	188	38.01	11.72	
	Grade 4	100	37.75	10.39	
	Total	733	38.01	10.36	
Total	Grade 1	190	381.41	62.25	.323
	Grade 2	255	377.84	53.81	
	Grade 3	188	375.60	65.82	
	Grade 4	100	379.64	54.51	
	Total	733	378.44	59.32	

적으로 투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지능의 경우 1단계 조직과 가치관비전공유가 음악지능의 14.1%를 설명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창의력에 대한 설명력이 5.3%가 증가하여 19.5%의 설명력이, 3단계는 감수성이

추가되어 2.1%가 증가하여 설명력이 21.5%를 보였으며, 4단계는 다문화의식이 추가되어 0.7%가 증가되어 22.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운동지능의 경우 1단계에 창의력은 신체운동지능에 대해 18.3%의 설

Table 10. Correlations among Global Competences and Multiple Intelligences

Categories		Multiple Intelligences							
		Musical Intelligence	Bodily Kinesthetic Intelligence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Spatial Intelligence	Linguistic Intelligence	Interpersonal Intelligence	Intrapersonal Intelligence	Naturalist Intelligence
Global Competences	Multicultural consciousness	.24***	.19***	.16***	.21***	.31***	.33***	.26***	.17***
	Earth community consciousness	.21***	.19***	.26***	.26***	.30***	.24***	.26***	.25***
	Problem solving skills	.32***	.32***	.46***	.42***	.51***	.39***	.54***	.37***
	Creativity	.37***	.43***	.41***	.46***	.57***	.42***	.52***	.37***
	Sensitivity	.34***	.29***	.19***	.27***	.43***	.48***	.38***	.23***
	Task commitment	.30***	.28***	.35***	.36***	.43***	.40***	.53***	.25***
	Change promotion	.29***	.41***	.37***	.46***	.50***	.46***	.50***	.36***
	Organizational belonging	.30***	.37***	.39***	.43***	.51***	.50***	.43***	.31***
Organization, value and vision in sharing	.38***	.26***	.30***	.35***	.52***	.60***	.58***	.26***	

\*p<.05, \*\*p<.01, \*\*\*p<.001

명력을 가지며, 2단계는 변화축진이 추가되어 5.2%가 증가하여 23.5%의 설명력을 가지며, 3단계는 감수성이 추가되어 1.2%가 증가하여 24.7%의 설명력을 가지며, 마지막인 4단계에서는 조직소속감이 추가되어 0.8%가 증가하여 25.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리수학지능에서는 문제해결력에 대해 21.3%의 설명을 가지며, 2단계는 조직소속감이 추가되어 4%가 증가하여 25.2%의 설명력을 가지며, 3단계는 창의력이 추가되어 1.9%가 증가하여 27.3%의 설명력을 가지며, 4단계에서는 변화축진이 추가되어 0.6%가 증가하여 27.9%의 설명력을 가지며, 마지막 5단계는 지구공동체의식이 추가되어 0.5%가 증가하여 28.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지능의 경우, 1단계에서 창의력에 대해 20.8%의 설명력이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변화축진에 대한 설명력이 7.1%가 증가해 27.9%의 설명력을 보였고, 3단계는 조직소속감이 추가되어 2.3%가 증가하여 30.2%의 설명력을 가지며, 4단계는 문제해결력이 추가되어 1.3%가 증가하여 31.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언어지능의 경우, 1단계에서 창의력은 언어지능

의 31.9%의 설명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조직과 가치관 비전공유가 추가되어 10%가 증가하여 41.9%의 설명력을 가지며, 3단계는 변화축진이 추가되어 2.4%가 증가해 44.3%의 설명력을 가지며, 4단계에서 감수성이 추가되어 1.8%의 설명력이 증가해 46.1%의 설명력을 가지며, 5단계는 문제해결력이 추가되어 1.2%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47.3%의 설명력을 가지며, 6단계는 조직소속감이 추가되어 0.8%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48.1%의 설명력을 가지며, 7단계는 다문화의식이 추가되어 0.5%가 증가하여 28.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간친화지능의 경우, 1단계에서 조직과 가치관 비전공유에 대해 36.1%의 설명력을 가지며, 2단계에서는 감수성에 대한 설명력이 5.3%가 증가하여 41.4%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3단계는 변화축진에 대해 2.7%가 증가하여 44.1%의 설명력을 보이며, 4단계는 조직소속감에 대해 0.8%가 증가하여 44.9%의 설명력을 보이며, 5단계는 창의력에 대해 0.6%가 증가하여 45.5%의 설명력을 보이며, 마지막 6단계는 다문화의식이 추가되어 0.6%가 증가하여 46.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Multiple Regression of Multiple Intelligences on Global Competences

Model	Variables	Categories	B	$\beta$	t	R	R <sup>2</sup>	F
1	Creativity	Multiple Intelligences	5.103	.246	7.469***	.586	.343	381.595***
2	Organizational belonging		4.026	.135	3.847***	.669	.448	296.068***
3	Problem solving skills		2.423	.161	4.845***	.693	.480	224.049***
4	Change promotion		3.398	.173	5.202***	.711	.506	186.060***
5	Sensitivity		2.549	.127	4.362***	.725	.525	160.658***
6	Organization, value and vision in sharing		1.103	.108	3.090***	.730	.533	137.905***
7	Earth community consciousness		1.195	.068	2.466***	.732	.537	119.901***
1	Organization, value and vision in sharing	Musical Intelligence	.326	.187	4.715***	.376	.141	120.376***
2	Creativity		.772	.218	5.953***	.441	.195	88.203***
3	Sensitivity		.515	.151	3.979***	.464	.215	66.626***
4	Multicultural consciousness		.413	.091	2.589**	.472	.222	52.037***
1	Creativity	Bodily Kinesthetic Intelligence	.822	.251	6.544***	.427	.183	163.324***
2	Change promotion		.582	.187	4.488***	.485	.235	112.146***
3	Sensitivity		.332	.105	2.965**	.497	.247	79.817***
4	Organizational belonging		.521	.111	2.738**	.505	.255	62.270***
1	Problem solving skills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744	.252	6.209***	.462	.213	198.102***
2	Organizational belonging		.782	.135	3.304**	.504	.254	124.060***
3	Creativity		.588	.145	3.573***	.522	.273	91.103***
4	Change promotion		.369	.95	2.338*	.528	.279	70.457***
5	Earth community consciousness		.265	.077	2.271*	.533	.284	57.719***
1	Creativity	Spatial Intelligence	.705	.206	5.203***	.456	.208	191.495***
2	Change promotion		.656	.202	5.075***	.528	.279	141.009***
3	Organizational belonging		.76	.158	4.010***	.550	.302	105.318***
4	Problem solving skills		.362	.145	3.728***	.562	.315	83.861***
1	Creativity	Linguistic Intelligence	1.168	.273	7.846***	.565	.319	343.187***
2	Organization, value and vision in sharing		.302	.143	3.895***	.648	.419	263.635***
3	Change promotion		.433	.107	3.024***	.666	.443	193.604***
4	Sensitivity		.564	.136	4.405***	.679	.461	155.754***
5	Problem solving skills		.363	.117	3.351**	.688	.473	130.584***
6	Organizational belonging		.745	.122	3.277**	.693	.481	112.060***
7	Multicultural consciousness		.420	.076	2.616**	.697	.486	87.802***
1	Organization, value and vision in sharing	Interpersonal Intelligence	.581	.330	8.923***	.601	.361	412.713***
2	Sensitivity		.695	.201	6.353***	.644	.414	258.150***
3	Change promotion		.326	.096	2.671**	.664	.441	191.539***
4	Organizational belonging		.566	.111	2.945**	.670	.449	149.453***
5	Creativity		.343	.096	2.927**	.675	.455	121.524***
6	Multicultural consciousness		.385	.084	2.829**	.679	.461	103.580***
1	Organization, value and vision in sharing	Intrapersonal Intelligence	.264	.285	8.629***	.580	.337	371.044***
2	Creativity		.316	.168	4.924***	.657	.431	176.951***
3	Task commitment		.404	.167	4.985***	.684	.468	214.141***
4	Problem solving skills		.231	.169	2.866***	.698	.487	172.600***
5	Change promotion		.236	.133	4.054***	.706	.498	144.296***
1	Creativity	Naturalist Intelligence	.585	.161	3.830***	.371	.138	116.564***
2	Change promotion		.639	.186	4.761***	.426	.182	80.996***
3	Problem solving skills		.443	.168	4.055***	.454	.206	62.971***
4	Earth community consciousness		.308	.100	2.850**	.463	.215	49.720***

\*p&lt;.05, \*\*p&lt;.01, \*\*\*p&lt;.001

자기성찰기능의 경우, 1단계에서 조직가치관비전공유는 자기성찰에 대해 33.7%의 설명력을 가지며, 2단계는 창의력이 추가되어 9.5%가 증가하여 43.1%의 설명력을 가지며, 3단계는 과제집착력이 추가되어 3.7%가 증가하여 46.8%의 설명력을 가지며, 4단계는 문제해결력이 추가되어 1.8%가 증가하여 48.7%의 설명력을 가지며, 5단계는 변화축진이 추가되어 1.1%가 증가하여 49.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연지능의 경우, 1단계에서 창의력은 자연지능에 대해 13.8%의 설명력이 있으며, 2단계 변화축진에 대한 설명력이 4.4%가 증가하여 18.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3단계는 문제해결력에 대한 설명력이 2.4%가 증가하여 20.6%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지구공동체 의식에 대한 설명력이 0.9% 증가해 21.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역량과 다중지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추후 간호학과 학생에게 있어서 효율적인 교수법 및 간호 환경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간호학생의 글로벌 인재 역량과 다중지능을 파악함으로써 학부 교과과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급변하는 간호환경에 있어서 간호학생들의 적응력 향상과, 이러한 변수를 분석함으로써 간호학생이 추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질을 높이는 한 요인이라고 사료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글로벌 인재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평균 136.82로 여학생 132.56에 비해 3.26이 높은 특성을 보였으며, 하위 영역에서 문제해결력, 변화축진, 조직소속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더 높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문제해결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각과 행동의 학습활동은 문제 상황에 더 잘 대처하므로 학생들 스스로 학습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탐색하고 획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19-21].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수업의 경우 남녀를 균등하여 배분하여 팀을 구성한다면 효율적인 수업진행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변화축진과 조직소속감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요구되는 남자다움, 즉 적극성, 능동성, 강한 리더십, 혁신 등의 단어는 남성다움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남성다움을 남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내면화 하면서 적극적인 남성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글로벌 인재 역량 관련 교육을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해외병원의 인턴십과 같은 국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및 인력지원,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졸업요건에 영어자격시험을 포함하여,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들에게 영어강의 이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강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에서는 신체운동지능과 자기성찰지능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성은 여성보다 모든 연령층에서 신체활동 참여를 유의하게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22]. 성찰적 태도는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로 인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자기효능감이나 자기 존중감을 높이게 됨은 물론 대학생활에 더 적응적이라고 하였다[23].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은 신체활동 참여율을 상승 시킨다고 하였다[24,25] 이러한 연구결과와 같이 자신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여학생이 선호하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역량과 다중지능 간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지능과 글로벌 인재역량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학생개개인의 지능 중 간호사로서 중요한 영역의 지능을 높이는 교육을 고려해야 한다. 간호사는 직업특성상 지적 능력의 강조만이 아닌 여러 영역의 능력, 특히 언어지능 및 인간친화기능은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된다. 환자 및 부서 직원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간호 현장에서 중요한 항목이므로 간호학생을 중심으로 다중지능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중지능을 연구한 논문은 있었다[26,27],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중

지능에 대한 논문은 없었으므로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간호학생의 강점기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 영역 속에서 핵심 역량을 구축하며, 지도교수의 경우 각 간호학생들의 강점을 고려한 진로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다양성에 있으며, 개별학습자의 다양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중요한 항목이다[6].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이 내용지식에서 역량기반으로 개편되고 있다[28]. 그리고 교육 품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산업계와 사회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올바른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다[28,29]. 이에 교과 과정 동안 학생 개인의 강점을 더욱 고려하여 다중지능을 반영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간호학과 특성상 학생들이 인간친화기능, 자기성찰기능, 언어기능 등의 영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통합적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구성과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역량이 다중지능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외국인 교환학생,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구가 150만명이 넘으며, 관광 및 국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외국인의 방문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30]. 따라서 간호사는 다양한 국적과 특성을 가진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상자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가 필요하며,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국제간호역량이 요구된다[31].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국제진료시 외국인 환자 전용 공간 및 시설 등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한 많은 상황을 예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간호학생의 글로벌 역량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32]. 따라서 간호학생은 국제문화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변화하는 간호 현장의 체계를 해결하는데 간호사의 다중지능을 고려한 업무 참여는 간호 서비스를 향상시켜 간호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우수한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다중지능을 반영하여 국제화 역량은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된다. 연구결과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입

상현장에서의 심도 있는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다중지능, 글로벌 영역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구성과 교육방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5. 결론 및 제언

다문화가족, 유학생, 외국인들의 증가와 관련한 대상자의 변화로 인해 간호사에게 있어서 국제화된 역량을 발휘할 영역이 높아져가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글로벌 인재 역량과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라 글로벌 인재 역량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글로벌 인재 역량과 다중지능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서울 및 부산에서는 외국인 진료센터 유치하며, 영어능력이 우수한 의료 인력으로 하여금 진료 및 간호를 하게 하는 실정이다[31]. 따라서 간호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인력의 서비스가 잘 조정 및 통합된 접근을 위해서는 다중지능을 고려한 간호학생의 핵심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국내 대학생과 유학 온 원어민의 peer-tutoring 프로그램이나 정규 교육과정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문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33].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단기간에 얻어지는 능력과 기술이라기보다는 대학생활 동안 자신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실제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34]. 그러나 의학계열과 보건계열의 학생의 경우 국가고시, 임상실습, 교육과정, 과도한 과제 등 엄격한 교육환경의 분위기이다[35]. 간호학과는 국가고시 합격률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암기위주의 공부는 간호학생에게 창의성 및 국제화된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간호학생에게 있어서 글로벌 인재 역량과 다중지능의 반영은 변화하는 보건의료에 있어 임상 현장의 효율적인 적응을 돕고, 간호사로 근무 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발휘하여 간호서비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학교 교과과정동안 학생들의 다중지능을 파악하여 글로벌 영역을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과정에서 다중 지능을 파악함으로써 학생의 개인별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교과과정의 적용을 제언한다. 둘째, 향후 다중지능의 요소중 임상 현장내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생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한 해외병원 인턴십 및 해외간호학교와의 교류를 위한 학교에서의 행정적인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및 국내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D. A. Forgione and P. C. Smith, "Medical tourism and it's impact on the US health care system," *J Health Care Finance*, Vol. 34, No. 1, pp. 27-35, Feb. 2007.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on foreign patients in 20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 [3] S. J. Kim, J. H. Oh, H. J. Park, B. R. Kim and K. S. Hong, *Understanding of Global Healthcare & Application for Nursing Practice*, Formurse, 2016.
- [4] A. Singh, M. Dash and V. Anand, "Study of Multiple Intelligence Among Postgraduate Management Students," *The IUP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0, No. 4, pp. 43-53, 2011.
- [5] H. J. Kim, *A Validation Study of Multiple Intelligence Measurement*,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 [6] Y. M. Lee, "The Effects of Teaching Strategies for Matching and Stretching of Multiple Intelligence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17, No. 1, pp. 25-46, 2004.
- [7] K. C. Hong and K. H. Im,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Multiple Intelligences and the Promotion of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Students through Multiple Intelligences-Based Instruction," *Thinking*, Vol. 6, No. 1, pp. 1-26, 2010.
- [8] J. S. Kim, Y. H. Kim, Y. H. Kim and S. J. Lee, "Job Analysis of Global Health Care Coordinators based on DACUM Method,"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3, pp. 353-372, 2011.
- [9] N. Y. Lee, E. N. Lee and E. Y. Park, "The Attitudes of Nurses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241-250, 2013.
- [10] A. J. Curtin, D. C. Martins, D. Schwartz-Barcott, L. DiMaria and B. M. Soler Ogando,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international service learning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Public health nursing (Boston, Mass)*, Vol. 30, No. 6, pp. 548-556, Nov. 2013.  
DOI : 10.5977/jkasne.2013.19.2.241
- [11] IEEE, *ETHICALLY ALIGNED DESIGN*, The IEEE Global Initiative for Ethical Consideratio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Systems, Dec. 2016.  
DOI : 10.1111/phn.12040
- [12] T. L. Kim, "Exploring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Korean Policy Studies Review Planning Seminar-,"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No. 1, pp. 3-27, 2017.
- [13] S. Y. Lee, "Educational Psychology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 23, No. 1, pp. 231-260, 2017.
- [14] R. Middleton, "Active learning and leadership in an undergraduate curriculum: How effective is it for student learning and transition to practi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13, No. 2, pp. 83-88, 2013.  
DOI : 10.1016/j.nepr.2012.07.012
- [15] S. Y. Baek, *Developing the Scale of Global Leader Competency Using Rasch Model*,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2013.
- [16] E. L. Chi, "Validating the Scale of Global Citizenship and Examining the Related Variables," *Education Evaluation*, Vol. 20, No. 2, pp. 151-172, 2007.
- [17] C. B. Shearer, *The MiDAS Handbook of Multiple intelligence in the Classroom*, 1997.
- [18] M. F. Hwang,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intelligences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9.
- [19] E. Y. Choi and J. Y. Kim, "The Relationship of Core Competencies (Problem Solv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o Critical Think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4, No. 4, pp. 412-419, 2007.
- [20] G. S. Oh and M. K. Lee, "An Internship Experience to Conver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73-185, Oct. 2015.  
DOI : 10.15207/jkcs.2015.6.5.173
- [21] S. A. Ya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4, pp. 389-398, Dec. 2010.  
DOI : 10.11111/jkana. 2010.16.4.389
- [22] E. Leslie, N. Owen, J. Salmon, A. Bauman, J. F. Sallis and S. K. Lo, “Insufficiently active Australian college students: perceived pers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Prev Med*, Vol. 28, No. 1, pp. 20-27, Jan. 1999. DOI : 10.1006/pmed.1998.0375
- [23] S. J. Lee and J. H. Yu,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2, No. 3, pp. 589-607, Sep. 2008.
- [24] M. L. Booth, N. Owen, A. Bauman, O. Clavisi and E. Leslie, “Social-cognitive and perceived Environmental influences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in older Australians,” *Prev Med*, Vol. 31, No. 1, pp. 12-22, Jul. 2000. DOI : 10.1006/pmed.2000.0661
- [25] J. L. Thompson, V. K. Wolfe, N. Wilson, M. N. Pardilla and G. Perez, “Pers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physical activity in Native American women,” *Am J Prev Med*, Vol. 25, No. 3, pp. 53-60, Oct. 2003.  
DOI : 10.1016/s0749-3797(03)00165-x
- [26] S. W. Kim, S. K. Han, H. S. Han and H. C. Kim, “Effect of Multiple Intelligence-based Strategy in Computational Literacy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 14, No. 6, pp. 11-18, Nov. 2011.
- [27] H. J. Cheon, “An analysis of Intelligent types of Korean Japanese language learners through Multiple Intelligenc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Vol. 22, pp. 327-343, 2010.  
DOI : 10.17949/jneac.1.22. 201003.020
- [28] H. J. Kim, “A Study on Developing Communication Courses to Enhance Undergraduates’ Core Compet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 9-16, Oct. 2016.  
DOI : 10.14400/jdc.2016.14.10.9
- [29] H. Y. Jung, “The Study on Essential Competencies for University Students in consideration of University Specialization and Major: Focusing on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19-32, Oct. 2015.  
DOI: 10.14400/jdc .2015.13.10.19
- [30]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A survey on resident foreigners in Korea 2013*, IOM·MRTC, 2013.
- [31] H. S. Park, S. J. Ha, J. H. Park, J. H. Yu and S. H. Lee, “Employment Experiences of Nurses Caring for Foreign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3, pp. 281-291, Jun. 2014. DOI : 10.11111/jkana.2014. 20.3.281
- [32] S. H. Lee, “Current Status and Promotion for Medical Tourism and Global Health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Vol. 25, No. 2, pp. 43-49, 2009.
- [33] W. H. Moon, Y. J. Kim,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Major Converged Short-term Study Abroad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2, pp. 1-11, Feb. 2015.  
DOI : 10.15207/jkcs.2015.6.2.001
- [34] M. H. Ha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preparation capacity and stress from college lif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7, No. 1, pp. 81-86, Feb. 2017.  
DOI : 10.22156/cs4smb.2017.7.1.081
- [35] S. Y.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15-122, Dec. 2016. DOI : 10.22156/cs4smb.2016.6.4.115

## 저 자 소 개

오 숙 희(Suk-Hee Oh)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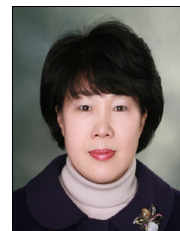


- 2004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조직개발 및 변화, 성과관리, 간호역량

선 정 주(Jeong-Ju Sun)

[정회원]



-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 간호시뮬레이션교육, 가정간호

장 성 화(Sung-Hwa Jang)

[정회원]



- 2000년 2월 :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 2005년 8월 :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 2010년 2월 :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 2012년 2월 : 세계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2012년 12월 : 전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3년 1월~현재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심리학부 교수
- <관심분야> : 학교(중독)진로상담, 군 및 교정상담, 리더십